특별기고

스타가 있어야 관객이 있다

박선정

국립발레단의 레퍼토리 가운데 '해적'이란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영국의 낭만시인 바이런의 시를 바탕으로 전설적인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한 고전발레의 대표작이다.

2005년 4월 국립발레단은 '해적'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렸다. 발레팬들은 오랜만에 출연하는 두 스타 무용수에 이끌려 관람석을 가득 메웠다. 김용걸과 김지영. 두 사람은 모두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있다가 각기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 입단하면서 국립을 떠나게 된다.

그 후 5년만에 재결합해 첫호흡을 맞춘 작품이 '해적'이기 때문에 열성팬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2막의 하이라이트인 파드되(2인무)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느낌이 있는 춤을 마음껏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기대에 보답했다.

발레 '해적'으로 글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 내 인생 중 가장 특별했던 순간이었으니까. 이 작품 1막에 나는 깜짝 출연한 영광(?)을 누렸다. 이른바 카메오 출연. 당시 국립발레단의 박인자 단장은 발레의 대중화 차원에서 정기공연임에도 1막에 등장하는 해적떼를 모두 카메오로 대체했다. 거의 문화계 인사들이었는데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이종덕 전 예술의 전당 사장 등 10여 명은 한달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나서야 오페라 극장 무대에 설 수 있었다.

공연이 열린 5일 동안 나는 흥분에 휩싸여 앞으로 발레를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물론 이 예감은 얼마 되지 않아 희미한 옛사랑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지만. 아무튼 우리 카메오들은 공연이 끝나고나서도 '해적 카메오'란 이름으로 모여 발레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한국의 발레리나들이 세계무대에도 통하는 경쟁력을 갖춘지 오래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수진과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 있었던 김지영, 그리고 최근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수석무용수로 승격된 서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ABT는 영국 로열 발레단이나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등과 함께 세계 5대 발레단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발레단이다. 오는 18일부터 서희는 ABT와 함께 낭만발레의 대표작 '지젤'로 예술의 전당에서 국내 발레팬들과 만난다.

'해적'에서 만났던 발레리나 김지영을 '백조의 호수'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최근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 초청작으로 광주를 찾은 것이다. 7년 전 보다 훨씬 성숙해진 그녀는 우아한 백조 그 자체였다. 파르르 떨리는 백조의 날갯짓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는 섬세함을 보여 주었다.

이틀간 광주문예회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더블 캐스팅으로 출연한 김지영과 이동훈, 김리회와 정영재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국립무용단의 최태지 예술감독이나 광주 출신 문병남 부예술감독은 광주팬들의 예상치못한 열광에 놀랐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무용단이 창단한 지 어느덧 36년째다. 한때는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과 더불어 국내 3대 발레단이라는 자부심이 넘쳤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지역 무용인들은 걱정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원들의 노령화다. 수년째 신규 채용 오디션 부재의 결과다.

스타가 없어 스펙터클한 클래식발레를 제작할 엄두를 못낸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많은 공연을 할 수도 없다. 발레리나의 생명력은 무대에 많이 세워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관객을 늘릴 핵심 요건인 발레 스타 발굴과 육성 등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발레는 공연예술의 꽃이자 스타들의 무대다. 그 출발점은 발레를 사랑하는 팬의 확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에도 자발적 발레 관객이 있다는 사실이다. 발레팬들은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여태껏 볼만한 명품공연과 걸출한 스타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면했던 터이다.

광주시가 열악한 재원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깨달아서 시립무용단은 존재 이유를 설득력있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차별화된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 광주발레를 부흥시켜야겠다는 결기를 세워야 가능하다. 광주발레의 역사, 이제 새롭게 써야 될 때가 왔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남대 위기, 구성원 모두 지혜 모을 때다

개교 60주년을 맞은 전남대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총장선거 부정과 관련해 당선자가 사퇴하는 등 대학을 이끌 리더십 공백현상이 불가피한데다 대학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각종 평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 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결정하고,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 대학을 선정하며, 내년 초 향후 7년간 대학의 연구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할 평가를 하게 된다.

당장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경우 우수 학생 외면과 미달 사태 등이 우려된다. 여기에 구조개혁 대상이 되면 입학정원이 20% 줄고, 각종 행·재정적 제재는 물론 5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또 '글로벌 EXCEL'이라는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면 향후 7년간 연평균 240억 원의 지원을 못받게 된다.

문제는 각종 평가에서 탈락이 현실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데 있다.

전남대는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제외돼 50여억 원의 예산을 받지 못했다. 주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였던 예산으로 장학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거부가 탈락의 주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총동창회가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직선제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직선제 폐지는 또 구조개혁 대상 선정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남대는 직선제 폐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직선제가 대학 자주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시대상황이 달라졌고 학생과 대학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위기 타개책을 찾고 호남 거점대학으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본격 장마 속 자연재해 철저히 대비해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틀 전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야영객이 고립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광양 118.5㎜, 광주 111㎜, 담양 110㎜, 나주 105㎜, 함평 101.5㎜, 순천 101㎜ 등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담양군 수북면 쪽재골 계곡에서 야영하던 신모(57)씨 등 4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으며, 광주시 북구 운임지하차도가 폭우에 잠겨 30여분간 통제됐다. 또 담양군 무정면에서는 오리농장이 침수됐고, 광주와 나주, 담양에서 일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비는 16일 밤 남해안부터 시작해 17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데다 이달 말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당국과 상습침수 및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근래들어 기상이변에 따라 예고 없는 게릴라성 폭우는 물론 하루 수백㎜의 호우가 쏟아지는 건 다반사다. 지난해 7월 광양·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에 사흘간 300㎜~400㎜ 이상의 '물폭탄'이 집중되면서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주택 40여채와 농경지 6800여ha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도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있어 항시 그렇듯 사고 발생시 인재(人災)나 관재(官災)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해 보성에서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도 사전에 위험지구로 지정해 응급조치를 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이 다수 상존해 있다.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면키 어렵다. 당장 재해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인재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1000만원짜리 술

김태균

아주 비싼 술이 있습니다. 몇십 년 된 양주도 아니고, 유럽 어느 곳에서 만든 와인도 아닙니다. 이 술은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술입니다. 한 잔에 1000만 원이나 하지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사람,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운전을 하면 3년을 교도소에 가야 하거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면 되고, 그것도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굳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심 형사재판은 1명의 판사가 하는 단독재판과 3명의 판사가 하는 합의부재판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3명의 판사가 하는 합의부재판이 1명의 판사가 하는 단독재판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지요. 형사합의부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수십억 원의 뇌물 또는 횡령 등 중죄에 대해서 심리하고 처벌하는 곳입니다.

이런 무서운 범죄를 재판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중한 범죄이고, 그 처벌이 강화된 것이지요.

하지만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중대성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부재판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징역 1년~3년이라는 것은 판사가 아무리 선처를 해도, 최소한 징역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뜻합니다. 징역 1년.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어서 징역형으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벌금 1000만 원은 어떤가요. 결코 적지 않은 큰돈이지요. 판사인 저로서도 몇 달 치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겨우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돈인 1000만원의 벌금은 판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선처하는 것입니다. 충격이지요. 1000만원이 선처라니. 하지만 징역을 선고받고 1년 이상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의미에서 선처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선량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별다른 전과도 없고, 평생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연도 구구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힘든 하루를 술로 달래고 귀가하던 중 적발된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 차를 대로변까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산골 오지에 살아서 일터까지 걷기엔 너무 멀고, 대중교통도 없어서 유일한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를 술 마시고 운전한 경우,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차를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생업이 운전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생계가 막막한데다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 모두가 딱하고 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형을 정하는 판사로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도 법에 정한 범위를 이탈해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음주운전을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형을 감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제가 담당했던 어느 사건입니다. 예순이 다 된 음주운전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는데, 여든이 넘은 그의 노모가 함께 왔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큰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무슨 큰 사단이 난 줄 알고 무척이나 놀랐나 봅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재판을 보다가 마침내 이미 굽어서 더 이상 굽혀지지 않는 허리를 애써 굽혀가며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읍소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노모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 연세에 법정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서 많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취중에 하는 실수야 용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를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면 절대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그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이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처벌이 최근 강화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보다 우선 본인과 가족이 당할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 판사〉

기고

국제농업박람회, 시도민이 주인돼야

박래복

최근 나주에서는 오는 10월 5일 개막 예정인 2012 국제농업박람회 준비가 한창이다. 나주시 산포면 농업기술원내 약 10만평 부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미래 첨단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주제관이 들어서고 관람객을 맞이할 주차장, 생태공원, 조경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할 국내외 기관·단체·기업들의 참여 신청 열기도 뜨겁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참가기업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6월말까지 접수마감 결과 해외 25개국에서 101개, 국내에서 279개 등 380개 기관·기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당초 목표 250개보다 52%가 높은 성과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로서의 낮은 인지도와, 지리적으로 취약한 접근성을 감안하면 매우 성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박람회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위로서는 기업유치에 성공했다는 기쁨으로 안도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관람객과 참여기업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 박람회는 결코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관람객과 참여기업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이 담보되어야 하고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들여 활발한 구매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은 80여 일 동안 관람객 확보와 손님맞이에 역점을 두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파리농업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다. 파리 농업박람회는 독일 하노버박람회, 네덜란드 축산박람회와 더불어 유럽 3대 농축산박람회로 유명하다. 올해 47회째를 맞고 있었는데 개장시간이 임박하자 관람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개장 한 시간도 안 되어 22만㎡의 부지에 들어선 8개 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가이드에 의하면 파리 시민들은 농업박람회를 가족과 함께 먹고, 쓰고, 즐기는 연례행사로 인식하며 참여하는 축제라는 것이었다. 입장료가 우리 돈으로 2만원인데 1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하니 관람료 수입만 해도 어림잡아 200억 원에 달했다.

이러니 선진국의 박람회가 수십 년의 전통을 이어가며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부러운 생각을 억제할 수 없었다.

역시 모든 축제나 행사는 그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었다.

2012 국제농업박람회는 생명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농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목표와 함께 글로벌 농업의 산물들을 직접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팔려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농업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일이고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농업박람회를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축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2012 국제농업박람회에 광주·전남 시·도민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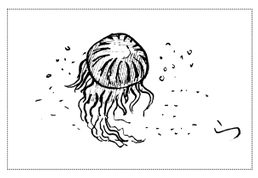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해파리의 역습

"큰 것은 길이가 5~6자이고 너비도 이와 같다. 머리와 꼬리가 없고, 얼굴과 눈도 없다. 모양은 중이 삿갓을 쓴 것 같고, 허리에 치마를 입어 다리에 드리워서 헤엄을 친다."

200여년 전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정약전은 자산어보(玆山魚譜)에 해파리(jellyfish)를 이같이 묘사했다. 당시 민간에서 부르던 이름은 해팔어(海八魚). 바닷물에 떠있는 모양이 달과 같다고 하여 해월(海月)이라 불리기도 했다.



해파리는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불량을 낫게 하며 가래를 삭여주는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져왔다. 소독약이 없던 시절에는 살균제로 이용되기도 했다.

오돌오돌 씹히며, 새콤하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해파리냉채는 입맛을 돋우는 전채(前菜)요리로 활용돼왔다. 자산어보도 "육지 사람들은 모두 삶아서 먹거나 회를 만들어 먹는다"고 기록했다.

2000년 이후 해파리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어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어민들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해파리반'이라고 호소한다. 조만간 전 세계 바다를 점령할 것이라는 '해파리 지배설'까지 등장했다.

과학전문 인터넷신문인 라이브사이언스가 선정한 인류에게 치명적인 5가지 동물에는 모기, 전갈과 함께 해파리가 포함됐다. 해파리의 무기는 60개의 촉수에 숨겨진 독성 세포다. 하나의 촉수에는 사람 60명을 죽일 수 있는 5000여개의 독 세포가 있다고 한다.

해수온 상승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전남 해역에 해파리 비상령이 내려졌다. 여수 가막만에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한 데 이어 중국 연안서 발생한 맹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조류를 타고 북상하자 전남도는 1억원을 투입해 긴급 제거작업에 나섰다.

해파리의 대규모 증식은 온난화와 남획으로 인한 어린 물고기 감소, 오폐수 증가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인간에 의해 균형과 조화를 잃은 환경생태계의 또 다른 역습인 셈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